



광주지역 소규모 재래시장이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지원에서 외면당하거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밀려 상가가 텅텅 비는 등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사진왼쪽부터)고사위기에 놓인 서방시장, 중흥시장, 산수시장의 모습.

사실상 고사 재래시장들 ‘속출’

서방·산수시장 등 상당수 폐업...시장 기능 상실
 정부 재래시장 활성화 조건 안돼 지원도 못받아

예전 손님들의 발길이 북적거렸던 광주지역 소규모 재래시장이 고사 위기에 놓여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지원에서 외면당하거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밀려 손님들이 끊기면서 상인들은 생계태전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본지 취재진이 찾은 광주 서방시장 곳곳은 황량함 그 자체였다. 시설노후화로 50여년의 세월을 지킨 상가건물은 몇 해 전부터 소방시설의 규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폐허가 됐다. 상가가 밀집된 시장골목 아케이드 천장은 찢어져 구멍이 뚫려 있었고, 박스

상자나 폐기물이 골목에 나뒹굴고 있었다. 1968년 북구 풍향동에 터를 잡은 서방시장은 광주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대규모 재래시장이었다. 인근 말바우시장과 달리 북적거리던 손님들로 매일 장이 열렸던 전성기는 이제 옛말이 됐다. 담양 등 인근 전남지역 상인들도 시내 버스를 타고 서방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하지만 1997년 서방지하상가 공사로 인근지역 버스노선이 변경되면서 서방시장을 찾던 전남 상인들은 말바우시장으로 터를 옮겼다. 이 때부터 손님들을 차츰 잃기 시작했다는 게 상인들의 전언이다. 더구나 현재 풍향1지구 재개발이 10

여년간 제동이 걸리면서 시장은 점차 힘을 잃게 됐다. 서방시장은 1987년 54개 상가가 입점했다. 하지만 현재 서방시장 구역 내에는 10개 내외의 점포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40년간 서방시장에서 상회를 운영하는 김옥희(81)·박경희(61) 모녀는 “30여년 전과 비교하면 밥도 굵게 생겼다”면서 “과거 선거철에 국회의원들이 줄기차게 찾아오더니 이제 와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딸 박씨는 “엄마가 이곳에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키웠다. 그런 정성이 깃든 곳이라 엄마 일을 물려받았고, 엄마의 인생이 묻어 난 곳이라 쉽게 시장을 떠

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구 중흥동에 있는 중흥시장도 사정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1977년 중흥동 빌라촌 가운데 삼각형 형태로 형성된 이 시장은 80개의 점포가 있었다. 현재는 15~16개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남아 있는 점포 또한 야채 등 식료품을 파는 곳이 아닌 자동차공업소가 대부분으로 재래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과거엔 시장을 중심으로 상가들이 즐비해 큰 골목시장을 이뤘지만 폐허가 된 상태였다. 시장의 정겨운 모습은 없고 큰 광음을 내는 기계소리만 가득했다. 이곳에 남은 7개의 점포상인들은 ‘이젠 더 이상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입을

열었다. 이곳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박 모씨(51)는 “13년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떠났고, 중공업 상가들만 모여 있다”며 “우리도 언제 이곳을 떠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동구 산수시장은 한때 상추튀김과 팔죽으로 이름을 날리던 곳이었다. 무등산 진입로에 자리한 탓에 등산객들도 거쳐 가는 재래시장이었지만, 중심사 입구 개발로 등산객들의 발길마저 끊겼다. 시장입구에 들어서자 습사리 빈 점포를 찾아볼 수 있었다. 빈 점포 입구에는 ‘임대문의’ 팻말만 나붙어 있었다. 70대 한 할아버지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웬데, 여기도 떠나고 다 떠나부

네”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시장 한쪽의 미용실들은 시장의 정을 보여주듯 ‘컷트 5,000원’이라는 홍보문구가 걸려있지만 손님 한 명 없이 고요했다. 상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위해 2014년 상인회를 구성했지만, 시장입구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발길도 자연스럽게 끊겼다고 입을 모았다. 북구청 관계자는 “중기청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선 상인회 구성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기능을 잃은 시장의 경우 한계가 따른다”면서 “또 시장구역이 재개발구역에 묶여 있다 보니 지원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규모 ‘관심’

공공기관들 올 하반기 채용 인원 속속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 가운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의 올 하반기 채용규모가 발표되면서 취업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의무화 등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전력·한전KPS·한전KDN 등 3개 전력기업이 하반기 신입사원 823여 명을 채용한다. 올해부터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

무 비율이 18%로 확대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출신 청년들의 ‘취업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해마다 3%씩 높아져 오는 2022년에는 30% 이상을 넘기도록 해 지역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취업문턱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대 공공기업인 한국전력은 하반

기 대졸수준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총 688명을 모집한다. 사무직 198명을 비롯해 전기 427명, ICT 39명, 토목 12명, 건축 10명, 기계 2명 등이다. 호남권 지역인재 채용은 12%인 사무 26명, 전기 51명 등 77명을 뽑는다. 지원서 접수는 4일 오후 4시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한전 채용홈페이지(recruit.kepco.co.kr)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한전KPS는 발전설비운용을 담당할 신입사원 75명(G4등급 3명, G2등급 72명)을 모집한다. ▶2면으로 이어짐 /서미에 기자

신안 압해~암태 교량 ‘천사대교’ 확정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간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지명이 ‘천사대교’로 확정됐다. 군은 군수와 교수, 민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안군지명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전원일치 의견으로 ‘천사대교’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압해-암태간 해상교량은 총 연장 7.22km로 사장교(1,004m)와 현수교(1,750m) 형식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의 장대 교량으로 우리나라 4번째 규모

이며 내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교량은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으로 공사 시행과정에서 가장 ‘새천년대교’로 불리다가 지역적인 연관성과 상징성 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군은 교량의 상징성과 디자인 등을 연계해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서남권 랜드마크로 부상시킨다는 전략으로 지명 제정에 나섰다. /신안=이주열 기자

영광을 넘어, 미래를 향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건강의 현수소를 알려주는
국민체력100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국민체육센터

대한민국 스포츠를 진전시키는
스포츠과학 연구

내일의 스포츠 영웅을 키우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차별 없는 스포츠복지를 실현하는
엘리트·장애인·생활 체육 육성

당신의 스포츠 그 모든 순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엘리트체육 육성에서 국민을 위한 생활스포츠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뛰는 모든 순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